## 기사인쇄하기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#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

금융위원회 2009.03.31

□ 「은행 자본확충 펀드 운영위원회」(위원장 : 강병호)는

○ 3.31일 「은행 자본확충 펀드」의 제1차 지원한도 12.3조원 중 8개 기관(우리금융지주 포함)이 발행한 3조 9,5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

□ 금번 매입에 참여한 기관은 우리지주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농협, 수협이며,

○ 매입증권별로는 신종자본증권 3조 4,530억원, 후순위채 5,030억원임

< 기관별 매입액 >
(단위 : 억원)

| | 우리지주 | 우리 | 경남 | 광주 | 국민 | 하나 | 농협 | 수협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종자본증권 | - | 10,000 | 1,160 | 870 | 10,000 | 4,000 | 7,500 | 1,000 | 34,530 |
| 후순위채권 | 3,000 | - | 1,160 | 870 | - | - | - | - | 5,030 |
| 합 계 | 3,000 | 10,000 | 2,320 | 1,740 | 10,000 | 4,000 | 7,500 | 1,000 | 39,560 |

□ 「은행 자본확충 펀드」는 금번 1차 매입에 이어 「펀드」 한도를 배정받은 은행들의 신청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추가 매입할 예정

* 은행권의 제1차 매입 한도액은 약12.3조원이며, 동 한도내에서 매입신청 가능

□ 「은행 자본확충 펀드」의 지원 목적은 실물경제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지정된 용도내 사용실적에 따라 은행의 자본여력을 보강(매칭 방식)함으로써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

ㅇ 따라서,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참여 은행과 운영위원회간에 체결한 '펀드 지원약정서*'에 따라 경영간섭은 배제하되, 지원 은행들의 실물지원을 강력히 유도해 나갈 예정임

* 지원자금의 용도내 사용의무, 사용실적 점검 방식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 조건 변경 등 사후관리 규정

ㅇ 「펀드」의 실제 지원여부와는 상관없이 한도를 배정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매월 실물지원 실적을 점검·평가할 계획

- 원칙적으로 '지원약정서'에 명기되어 있는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을 인정하되

-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분야별 실적 인정 한도를 부과할 예정임

ㅇ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차회분 인출 제한, 한도 조정, 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

"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."

인쇄하기 닫기